

社說

맑고향기로운 '연꽃 피우기' 20년

무소유와 나눔의 표상이던 법정 스님이 입적전까지 이끌던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맑고 향기로운 사회야말로 법정 스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지향이었다. 1993년 강원도 두메산골 토굴서 정진하던 법정스님은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뜻으로, 종교와 종파를 떠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했다. (사)맑고향기롭게는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름사에서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날 밤에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하여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당부했음을 정도로 이 단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다.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향훈은 (사)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3월 30일 서울 김상사 설법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맑고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부대 내의 책 읽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2만 6000여 권의 도서를 국군문화진흥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독거노인 자살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일환으로 동전 모금통 배부 및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이 모두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사)맑고향기롭게의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이번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점점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사)맑고향기로운 울림들이 더욱더 넓게 퍼져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맑고향기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

새 출발 '병불련'의 역사여래 원력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병불련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김진섭 회장 이·취임 법회'를 열었다.

병불련은 1999년 10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불자 의료인들이 모여 창립한 신생단체다. 현재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경희의료원, 건국대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8개 병원 불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적박한 불모지였던 병원 의료 포교의 선두주자였지만, 불교계의 관심은 적었다. 변변치 않는 사무공간도 지원되지 않아 메뚜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부처님의 자비 손길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불자 의료인들이 모인 것이다.

현재 병불련 회원이 200여명 정도지만 의

료진이 부족해 의료봉사를 가변 행명의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새로운 병불련의 수장인 김진섭 회장은 올해를 '재결집 원년의 해'로 삼고 불자의료인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또한 후원자 및 불자기업과 연계해 재정을 마련하고 치과진료시설 및 의료버스, 약품저장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펼친다는 것이다.

병불련 회원들은 '약사12대원(藥師十二大願)'을 통해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살들이다. 불자 의료인들은 한국불교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원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단과 일선 신도회들이 지켜줘야 한다. 새로운 병불련의 역진을 기대한다.

“...»”-

“핵, 무기 아닌 ‘쟁기’로 사용하자”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동국대 명예교수

“어느 국가도 핵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핵 테러는 한번 발생하면 범세계적 재앙이 됩니다. <중략> 현재 세계에는 11만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과 방사능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위험 물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도난과 분실, 불법거래가 이들에 한번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입니다.”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행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번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회의이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53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핵물질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97%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이들 나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어느 국가도 핵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무기급 핵물질 제거 및 최소화’ ‘핵물질 불법거래 차단’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 원자력 시설의 감소 강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 증진’ 등을 회의 주제로 논의했다.

그 결과 이 회의에서는 2년 전 서울 회의를 계승해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의 건설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하기로 하고, 또 국제핵안보체제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 이용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 비준 촉구, 위험핵물질 최소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산업계의 참여 촉진,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감시능력 제고 등도 결의했다.

한국은 2012년 전임 의장국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첫째 핵안보와 핵군축, 핵 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둘째 지금까지 핵 안보 조치가 개별 국가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핵 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카니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핵 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넷째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촉구는 전체 회의에 크게 반영되었다.

UN은 세계대전을 겪고 타생한 국제기구로서, 지구상 인류의 모든 분쟁을 전쟁 없이 해결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핵의 공포’를 인류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1945년 8월 6일과 9일의 일본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 투하,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는 핵의 가공할 사람 살상과 문명 및 자연 파괴 그리고 방사능의 끝없는 오염의 공포를 직접 인류에게 보여주었고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1년 3월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핵물질들 지구상에 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자각심을

전 인류에게 갖도록 했다.

핵안보회의는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인류에게 대재앙을 몰고 올수 있는 핵무기, 핵물질 및 방사능의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고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에 맞게 100% 달성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류는 핵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특히 불교는 일체 중생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교의를 생명으로 삼고 있다. 핵은 물론 어떠한 살상무기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최대한 ‘부처님의 법’과 ‘인간 이성의 힘’에 의존하여 이러한 살상의 도구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의 결의가 각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규범이 조속히 확립되기를 촉구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불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는 열강들의 탐바구니에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위협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사상적 당위성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회단 주최로 3월 28일 열렸다. 세미나의 기조발제와 토론문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주>

아미타 정토사상, 남북통일 사상 기초



진관 스님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단장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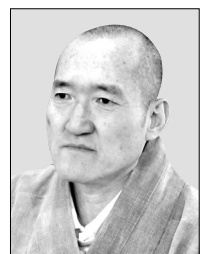
한국 불교계의 통일운동은 단순히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주체적으로 불교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이자 과거 호국불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남북 불교도가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상은 <정토삼부경>에서 찾을 수 있다.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남측의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의 교류를 통해 우선 북과 남의 불교도들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일깨우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정토삼부경>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분단의 고착화로 통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통일은 경제적 윤희리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는 곧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극락세계의 구현이기도 하다.

나아가 남과 북의 민중들을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는 이론은 남과 북의 불교계 모두가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터이다.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정토신앙이 아닐까 한다. 지금 우리 팔천만 겨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 청정한 국토를 장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장비구의 48대 서원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되새겨보고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만 잃었던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한국 불교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다.

한반도 통일 연구에 불교계 나서야



범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해 합병을 결정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마치 제국주의 시절의 ‘짜르’ 처럼 승리를 선언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이후에 미국 내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맹비난을 퍼부으며 동서냉전의 진영논리를 다시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서냉전의 논리가 만들어낸 분단 70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동서냉전의 부활을 알리는 듯한 크림반도에서의 정치적 ‘대지진’은 결코 나비의 날개짓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하필 바로 이 시점에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통일론’이 무슨 불처럼 일고 있는데,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위로부터의 과도한 통일론은 북한을 오

히려 불안하게 하고 거꾸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는 세계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우리 사회의 지식과 종교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 특히 조계종은 적극적인 자세로써 한반도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각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관련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증원하고 이 분야에 일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불교계 내 평화·통일운동 관련 종단기구와 단체들이 대북정책 관련 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 단체마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불교계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단체의 특징에 맞는 역할 분담 및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는 것도 추진해 볼만 하지 않은가 한다. 불교계의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정확한 현황과 그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이사회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정흥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약상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과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